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335-374  
<https://doi.org/10.29212/mh.2022..122.33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갈리아 전쟁기 로마군 병참술의 한계\*

배은숙 |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현지 조달의 필요성
  3. 군수물자 확보의 즉흥성과 위험성
  4. 군수물자 수송과 병참 기지 선정의 위험성
  5. 맺음말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카이사르가 병참 체계를 강조한 것처럼 실제 전장에서 병참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카이사르는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는 갈리아족의 군수물자 공급에 의존했다. 하지만 동맹군은 군수물자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반로마로 돌아서서 군수물자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 카이사르는 동맹군의 배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다. 현지 주민의 식량이나 가축 떼를 약탈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약탈은 적대적인 갈리아족을 확

\* 이 논문은 2020년 계명대학교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산하므로 자제해야 하는 방법이었다. 곡식 수확 시기에 현지에서 수확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이 또한 수확으로 인해 경계가 느슨하여 적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처럼 현지에서 확보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군수물자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군수물자 부족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조급하면서도 즉흥적인 작전 변경을 유발했고, 이는 작전 실패로 이어졌다.

군수물자를 전장이나 다른 주둔지로 수송할 때 해로는 육로보다 수십 배 더 싼고, 수송 시간도 4배 덜 걸렸다. 하지만 카이사르 군대의 전장이 바다나 강과 떨어진 내륙이어서 해로의 유익성을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수백 대의 군수물자 행렬은 적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이동을 적게 하면서 병참선을 연결하는 것이 병참 기지였다. 전장이 내륙이나 산, 숲, 늪지대를 병참 기지로 활용했는데, 이는 강이나 바다를 활용한 배후의 병참선과 연결되기 어려웠다. 또 수비나 배급의 편의성을 위해 군수물자를 한곳에 보관했는데, 이는 적군의 공격으로 군수물자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군수물자 수송이나 보관 방식, 병참 기지 선정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여 모든 전략과 전술, 지도력, 용병술, 병참술이 완벽했다고 볼 수 없다. 카이사르는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군수물자 부족 현상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그의 상황은 중앙집중식 병참 체계가 있었던 포에니 전쟁기나 상비군과 영구 주둔지 체제로 군수물자 수급이 일정했던 제정기에 비하면 열악했다. 따라서 공화정 후기는 이전이나 이후 시대와 비교하여 병참술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병참술, 현지 조달, 군수물자 수송 행렬, 병참 기지, 해로와 육로 수송

(원고투고일 : 2021. 11. 30, 심사수정일 : 2022. 2. 15, 게재확정일 : 2022. 3. 3.)

## 1. 머리말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갈리아 정복 과정을 기록한 『갈리아 전쟁기(Commentarii De Bello Gallico)』는 기원전 52-51년 사이에 출간되었다. 총 8권으로 되었는데, 7권까지는 카이사르가 직접 서술했고, 8권은 히르티우스(Aulus Hirtius)가 첨가한 것이다. 기원전 54년 카이사르 휘하의 군단장이었고 43년의 집정관이었던 히르티우스는 카이사르 암살 직후 그가 남겨놓은 단편적인 기록을 근거로 보충했다. 『갈리아 전쟁기』는 기원전 58-52년까지 갈리아 지역에서의 정복 활동을 담고 있다. 1권은 기원전 58년 갈리아 남동쪽의 헬베티이인(Helvetii)과 게르마니아인의 왕 아리오비스투스(Ariovistus)에 대항한 전쟁을 기록했다. 갈리아 전쟁은 헬베티이인이 로마의 갈리아 속주를 가로질러 대규모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sup>1)</sup> 군대를 모은 카이사르는 헬베티이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들을 로마 영토에서 쫓아버렸다.<sup>2)</sup> 이후 카이사르는 로마의 동맹군인 아이두이인(Aedui)을 공격하는 아리오비스투스와 세콰니인(Sequani)에 대항해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2권은 기원전 57년 북부의 벨가이인(Belgae)에 관한 것이다. 갈리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던 벨가이인이 로마의 갈리아 정복에 두려움을 느껴 주변 세력을 모으고 있었다. 이에 카이사르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공성 장비들을 동원한 포위전으로 벨가이인과 네르비이인(Nervii)에 대해 승리하여 복종을 약속받았다.<sup>3)</sup>

1) Caesar, *Bellum Gallicum* 1.7.

2) Caesar, *Bellum Gallicum* 1.29.

3) Caesar, *Bellum Gallicum* 2.1-35.

3권은 기원전 56년 남서쪽의 베네티인과 아퀴타니아인(Aquitania)을 정복한 기록이다. 로마군 지휘관들을 인질로 잡은 베네티인을 응징하기 위한 전투는 적선을 포획함으로써 승리했고, 아퀴타니아인에 대해서는 포위 작전과 기병 추격 작전으로 승리했다.<sup>4)</sup>

4권은 기원전 55년 게르마니아인과 브리타니아 원정에 관한 기록이다. 카이사르는 갈리아로 넘어오려는 게르마니아인을 격퇴한 후 라인강 너머의 게르마니아인과 싸웠다. 이후 그는 갈리아의 나머지 지역을 평정하는 대신 갈리아에 원군을 파견했던 브리타니아를 응징하고자 원정을 감행했다.<sup>5)</sup>

5권은 기원전 54년 두 번째의 브리타니아 침공과 벨가이인의 반란을 기록했다. 카이사르는 브리타니아의 주도권 다툼에 개입하여 승리한 후 인질과 매년 공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고 대륙으로 건너왔다. 벨가이인이 로마의 군단을 파괴했고, 로마군은 네르비인과 트레베리인(Treveri)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갈리아 전쟁기』에서 분량이 가장 짧은 6권은 기원전 53년 갈리아 북부 지역의 반란으로 재차 라인강을 건너는 일을 기록했다. 수에비인이 자신들의 숲으로 후퇴해버리자 카이사르는 그들을 추격하지 않고, 갈리아로 돌아와 에부로네스인(Eburones)을 물리쳤다.

분량이 가장 많은 7권은 기원전 52년 카이사르가 갈리아 14개 부족의 반란을 어떻게 진압했는지를 기록했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적의 여러 요새를 점령했지만, 게르고비아(Gergovia)에서 패배했다. 베르킨게토릭스(Vercingetorix)의 지도하에 갈리아의 반란은 더욱 확산했다. 알레시아에서 벌어진 주요 전투에서 로마

4) Caesar, *Bellum Gallicum* 3.7-16, 3.20-27.

5) Caesar, *Bellum Gallicum* 4.1-19, 4.20-38.

군은 베르킨게토릭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반란을 종결지었다.

8권은 기원전 51년 갈리아가 정복된 후의 상황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탈리아의 정세를 기록했다. 『갈리아 전쟁기』에서 카이사르는 6권을 제외하고 속주의 일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갈리아 지역의 혼란과 호전적인 부족의 성향을 강조함으로써 원로원의 승인 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변호했다.<sup>6)</sup>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기』에 군량 확보나 병참 기지에 대해 지속해서 강조했다. 고대 사가 중 병참 문제에 신경을 쓴 사람은 카이사르와 암미아누스(Ammianus Marcellinus)이고, 그 외의 사가들은 관심이 없거나 당연시했다.<sup>7)</sup> 카이사르는 “군대가 단결하는 것은 병참을 적절히 유지해야 가능한 일이다”<sup>8)</sup>라고 했다. 그가 군수물자 확보에 신경을 썼기에 최소한 병참에 관한 한 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1990년대 로마군의 병참에 관한 연구가 3권 잇달아 나왔다. 골즈워드(A. Goldsworth)는 일관되고 신뢰할 만한 통계 부족을 이유로 부록에서 간단히 언급했을 뿐이다. 에드캄프(P. Erdkamp)는 『갈리아 전쟁기』에서 카이사르가 군수물자 공급과 수송 시스템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로스(J. Roth)는 기원전 3세기 초에 로마군에게 병참 체계란 없었고, 공화정 말기 카이사르를 통해 복잡한 병참선(*commeatus*)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에서 병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병참 문제를 고심했던 카이사르를 긍정

6) F. Phillips, “A General's Self-Depiction: The Political Strategies of Gaius Julius Caesar as Seen in the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Senior Honors Theses* 109, 2004, 6-14.

7) J. Serrati, “Review of *Hunger and the Sword: Warfare and Food Supply in Roman Republican Wars (264-30 BC)*”,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90, 2000, 222.

8) Dio, *Historia Romana* 42.49.5.

적으로 평가했다.<sup>9)</sup>

2000년대에도 병참에 관한 한 카이사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러펠(D. Ruppel)은 “병참, 특히 군량에 대한 카이사르의 지배력이 갈리아인을 패배시키는 데 성공한 원인”이라고 보았다. 존슨(K. Johnson)은 카이사르가 천부장과 백부장을 통해 병참 문제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정확했고, 군대의 규모나 지형의 조건을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블루아(L. de Blois) 또한 카이사르는 군대의 훈련과 복지가 군사적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 군수물자 확보를 통해 휘하의 병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로젠슈타인(N. Rosenstein)은 갈리아 전쟁 동안 2-4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잘 먹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카이사르는 이를 잘 수행했다고 했다. 카펜터(W. Carpenter)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병사들을 잘 먹여 건강하게 했고, 병사들에게 군량을 공급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sup>10)</sup>

9) A. Goldsworth, *Roman Army at War: 100 BC-AD 200*, Oxford: Clarendon Press, 1998; P. Erdkamp, *Hunger and Sword. Warfare and food supply in Roman republican wars (264-30 BC)*, Amsterdam: J. C. Gieben, 1998; J.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64 B.C. - A.D. 235)*, Leiden: Brill, 1999; S. R. Matthews, “The Logistics of Feeding the Roman Army on the Lower Danube”, Ph.D. diss., University of London, 2018, 22-23.

10) D. Ruppel, “Caesar’s Corny Commentaries: Provisions as Power in *The Gallic War*”, *Hirundo: The McGill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7, 2008/2009, 106; Kyle P. Johnson, “Organization and Decision Making in Caesar’s ‘Bellum Gallicum’” Ph.D. diss., New York University, 2012; N. Rosenstein, “Military Logistics”, in J. Raaflaub, ed., *The Landmark Caesar*, New York: Anchor Books, 2017, 75-96; L. De Blois, “Caesar the General and Leader”, in Kurt A. Raaflaub, ed., *The Landmark Caesar*, New York: Anchor Books, 2017, 102-108; W. Carpenter, “An Analysis of Julius Caesar’s Generalship as Compared to Proper Generalship in Vegetius”, *Student Research Submissions* 342, 2020, 4-36.

갈리아 전쟁기의 병참 문제는 카이사르의 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글은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군지휘관의 모습, 군량 확보에 성공하는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돋보이고자 하는 수사적 의도가 다분하다.<sup>11)</sup> 로마군의 병참술을 알기 위해서는 카이사르 개인의 군사적 능력보다 그가 실제로 군량 확보에 성공했는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병참 체계가 적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카이사르가 병참 체계를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것과 실제 병참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리아 전쟁기 카이사르의 군수물자 확보 과정을 통해 로마군의 병참술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여러 관료(*praefectus annonae*, *praefectus vehiculorum*, *curator copiarum*)와 영구 주둔지를 거점으로 병참술이 체계화된 제정기로 이어지는 단계이므로 의의가 있다.

## 2. 현지 조달의 필요성

아군의 군수물자 확보와 적군의 군수물자 부족 유도 전략은 군사 전략가들이 누누이 강조하는 바이다. 프론티누스(Sextus Julius Frontinus)는 전투 전에 아군의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적은 피곤하고 배고파지도록 전투를 지연하는 전략을 권고했다. 가령 기원전 218년 트레비아 전투에서 로마군이 패배한 것은 군인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차가운 강물을 건너게 한 것이라는 것이 사가들의 분석이다.<sup>12)</sup>

11) D. Ruppel, "Caesar's Corny Commentaries: Provisions as Power in *The Gallic War*", 101-106.

12) Frontinus, *Strategemata* 2.1.1, 2.1.5; Livius, *Ab Urbe Condita* 21.54; Polybius, *Historiae* 3.72.4-5.

4세기 말에서 5세기의 군사 전략가인 베게티우스(Publius Vegetius)는 주로 카이사르가 살았던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의 군대를 표준으로 삼았다. 그가 병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카이사르의 행동에서 유래했다. 그에 따르면, “사료와 곡물 공급은 위기에 처했을 때 미리 보관하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 어떤 원정에서든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아군의 식량은 충분하고 적군은 부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군수물자 공급 체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군대란 전투보다 굶주림으로 파괴되는 일이 더 빈번하고, 기군은 검보다 더 야만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sup>13)</sup>이라고 했다.

군수물자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군인들이 모든 군량을 짊어지고 가면 좋지만, 군인의 짐에는 한계가 있다. 코윈(R. Cowan)의 평가에 따르면, 투구 2kg, 사슬갑옷 12kg, 벨트 1.2kg, 방패 10kg, 검과 칼집 2.2kg, 단도와 칼집 1.1kg, 투창 1.9kg 등 무구의 무게는 총 30.4kg이었다.<sup>14)</sup> 여기에 60로마파운드(19.647kg)에 달하는 군장을 짊어져야 했다.<sup>15)</sup> 군장에 대해 리비우스(Titus Livius)는 “12개의 말뚝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군인들이 각자 청동으로 된 그릇, 물항아리, 곡물과 풀을 자르는 작은 낫, 흙을 나르는 나뭇가지로 엮은 바구니, 곡괭이(*dolabra*), 삽, 주둔지를 방어하기 위해 박는 말뚝(*pilupe murale*) 2개, 도끼, 갈고리 등을 가지고 다녔다고 기록했다.<sup>16)</sup> 건설 도구까지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갈리아 전쟁에서 증명

13)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3, 3.6, 3.11; W. Carpenter, “An Analysis of Julius Caesar’s Generalship”, 4.

14) R. Cowan, *Roman Legionary 58 BC-AD 69*, Oxford: Osprey Publishing, 2003, 26-29, 32, 42-43; A. Goldsworthy, *Roman Warfare*, London: Basic Books, 2000, 125.

15)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1.19.

16) Livius, *Ab Urbe Condita* 3.27; Josephus, *Bellum Judaicum* 3.95.

된다. 당시 무거운 화물을 두고 왔는데도 주둔지의 도로를 건설한 것, 로마군 병사들이 목재와 군량을 구하는 동안 방어시설을 구축한 것을 보면 리비우스와 요세푸스의 말처럼 병사들이 주둔지 건설 도구를 들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군인들에게 많은 짐을 들고 가게 한 사람은 체력 단련을 위한 훈련의 중요성과 군수물자 행렬을 줄여 빠르게 이동하는 이점을 강조했던 마리우스(Gaius Marius)였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은 ‘마리우스의 노새(*mulus Mariani*)’라 불렸다.<sup>18)</sup>

무장한 상태에서 건설 도구를 가지고 다녔다면 병사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군량의 양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군량의 양에 대해 리비우스는 기원전 458년 아이퀴아인(Aequia)과 전쟁하러 출발할 때 ‘5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갔다고 했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는 병사들이 ‘반 달 이상의 식량’을 휴대했다고 했으나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요세푸스는 병사들이 ‘3일분의 식량’을 휴대했다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3-4세기의 기록에서 군인들이 적지를 제외하고는 보통 가지고 다니던 17일분의 식량을 굶어지지 않아도 된다가나 전장으로 갈 때 17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다녔다는 표현이 있다.<sup>19)</sup>

매일 필요한 군량의 양에 대해 폴리비우스(Polybius)는 기록하기를, 보병은 매달 밀  $\frac{2}{3}$ 아티카 메딤노스(*Attic medimnos*)를, 기병은 보리 7메딤노스와 밀 2메딤노스를 받고 봉급에서 공제했다. 동맹군 보병은 로마군 보병과 같게 받았고, 동맹군 기병은 보리 5메딤노스와 밀  $\frac{1}{3}$ 메딤노스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한 매튜(S. R.

17) Caesar, *Bellum Gallicum* 5.49, 7.73.

18) Plutarchos, *Marius* 13; Frontinus, *Strategemata* 4.1.7; Caesar, *Bellum Gallicum* 5.16.

19) Livius, *Ab Urbe Condita* 3.27; Cicero, *Tusculan Disputations* 2.37; Josephus, *Bellum Judaicum* 3.95;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A. Severus 47.1; Ammianus Marcellinus, 17.9.2.

Matthews)의 계산에 따르면, 최대치로 추정하여 군인은 매일 곡물 0.809kg, 고기 0.100kg, 올리브유 0.043kg, 포도주 0.5ltr, 과일 및 기타 채소 0.270kg을 소비한다.<sup>20)</sup> 포도주의 무게를 제외하면 1.222kg이고, 3일분이면 3.666kg이고, 17일분은 20.774kg에 달한다. 여기에 포도주의 무게, 무장과 건설 도구를 더하면 17일분은 들고 다닐 수 있는 무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장의 거리나 상황에 따라 휴대할 수 있는 양이 달라 정확히 며칠 분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3-5일분이고, 17일분은 최대치일 가능성이 크다.

군인들이 본국에서 출발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3-5일분 정도, 최대한 17일분이라면 나머지 기간은 다른 방법으로 군량을 확보해야 한다. 전쟁이 휴대한 군량의 양에 맞추어 전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본국에서 수송해 오는 것이다. 공화정 초기와 중기는 원로원이 군대와 군수물자의 공급을 주관했다. 전쟁이 선포되면 원로원이 명령권을 가진 정무관들(*consul, proconsul, praetor, propraeor*)에게 군수물자를 구매하거나 징발할 권한을 부여했다.

집정관이 내가 말한 권력을 가지고 군대와 함께 떠날 때, 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그는 시민과 원로원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그들의 지원 없이는 작전을 끝낼 수 없다. 군단들은 항상 군수물자가 있어야 하는데, 원로원의 동의 없이는 곡물도, 의복도, 봉급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sup>21)</sup>

20) S. R. Matthews, "The Logistics of Feeding the Roman Army on the Lower Danube", 64.

21) Polybius, *Historiae* 6.15.

군대나 군수물자를 모으는 실질적인 준비는 군사령관인 집정관이 했지만, 그렇게 하도록 승인하는 권한은 원로원에게 있었다. 기원전 215년 스페인에서 카르타고 세력에 대항하고 있던 스키피오 형제(Publius Scipio, Gnaeus Cornelius Scipio)는 원로원에 편지를 보냈다.

병사들에게는 돈, 의복, 곡물이 부족하고, 선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 돈에 관한 한 만일 국고(*aerarium*)가 비었다면 우리는 스페인인에게서 얻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머지 모든 것은 로마에서 보내야만 할 것이다.<sup>22)</sup>

이에 원로원은 곡물과 의복을 배로 보내는 특별한 조치를 했다. 또 3차 마케도니아 전쟁에 앞서 아이밀리우스(Aemilius Paulus)가 원로원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공급해 달라고 한 사례도 있다.<sup>23)</sup> 이를 볼 때 공화정기는 원로원이 병사들의 봉급과 군량을 포함하여 ‘다른 전쟁 필수품’ 확보를 승인하고, 이렇게 모은 군수물자를 필요한 군대로 옮기는 중앙집중식 병참 체계였다.<sup>24)</sup>

원로원이 군수물자 확보를 승인하는 체제가 카이사르 때에도 유지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군대를 모집하는 과정이 공화정 후기에는 달라졌기 때문이다. 마리우스는 메텔루스(Quintus Caecilius Metellus)의 후임으로 유구르타(Jugurtha) 전쟁을 지휘할 때 그에게 받은 2개 군단으로 모자랐다. 더 많은 병력을 징집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원로원은 승인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22) Livius, *Ab Urbe Condita* 23.48.4–23.49.4.

23) Plutarchos, *Aemilius Paulus* 11.1; Polybius, *Historiae* 6.12–13.

24) Livius, *Ab Urbe Condita* 33.43.3–9, 36.1.6–8;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27.

그는 원로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군대에 입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복무에 필요한 군수물자는 자신의 경비로 조달했다.<sup>25)</sup> 마리우스가 원로원의 승인 없이 군대를 모은 이후 내전기 군사령관들은 군대와 군수물자의 원로원 승인이 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군대를 모집한 군사령관 개인에게 군수물자 확보의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은 카이사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폼페이우스(Gnaeus Pompeius)는 스페인에서 세르토리우스(Sertorius)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돈으로 군인들을 부양해야 했다.<sup>26)</sup> 카이사르가 기사 신분의 푸피우스(Gaius Fufius Cita)에게 군량 확보 업무를 맡긴 것은 그의 개인적인 선택일 뿐 공식적인 병참 관료는 아니었다. 기원전 46년 아프리카 전쟁에서 역사가 살루스티우스(Gaius Sallustius)에게 케르키나(Cercina)섬에서 군수물자를 확보하도록 한 것 또한 카이사르의 개인적인 명령이었다.<sup>27)</sup> 따라서 공화정 후기는 군사령관 개인이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체제, 즉 분산적인 병참 체제였으므로 카이사르도 군수물자를 자체 해결해야 했다.

카이사르가 군수물자를 갈리아 현지에서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는 방법은 농사를 짓는 것이다. 베게티우스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 식량을 많이 저장해 놓거나 동물을 많이 기르는 방법을 권장했다. 또 빈 땅에 농사를 짓거나 과실 나무를 키우는 것도 권장했다.<sup>28)</sup> 갈리아 지방이 “북쪽에 위치해 날씨가 추위 곡식이 아직 영글지 않았다”거나 갈리아인이 “인구 과잉과 경작지 부족으로 레누스(Rhenus)강 동쪽으로 이민단을 보낸 적도

25)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46, 64, 82-86.

26) Plutarchos, *Pompeius* 20.1; Sallustius, *Historiae* 2.98.3-9.

27) Caesar, *Bellum Gallicum* 7.3; *Bellum Africum* 8.3, 34.1-3.

28)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4.7-10.

있다”<sup>29)</sup>는 기록을 보건대 이들이 농사를 짓는 법을 알기에 현지인을 이용한 재배가 가능하다.

하지만 로마군은 갈리아에서 여러 지역으로 빈번하게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가령 로마군은 기원전 58년 갈리아 키살피나(Gallia Cisalpina) 속주의 아퀼레이아(Aquileia)에서 오켈룸(Ocelum)까지 510km를 이동했는데, 매일 50km를 행군한다고 해도 10일이 넘게 걸렸다. 오켈룸에서 제네브르산(Mt. Genevre)을 통과하여 보콘티이(Vocontii)까지 산악 지역을 거쳤으니 매일 28km 행군하면 그해 3월 내내 행군만 했을 것이다. 또 그해 6월 28일에서 7월 14일까지 헬베티이인과 첫 번째 전투를 하고, 7월 17일 아리오비스투스와 전투를 했다. 8월 21일에 카이사르는 동쪽으로 3일 동안 120km의 거리를 이동했다. 또 아리오비스투스가 베손티오(Vesontio)를 장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속력으로 행군했는데, 행군한 거리는 대략 170-210km이다.<sup>30)</sup> 이처럼 갈리아 전역이 전장이었으므로 빈번한 이동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군량 확보를 위해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갈리아인이 아니면 인근 게르마니아인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도로가 모두 차단되어 속주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증원 부대가 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카이사르가 게르마니아인에게 사자를 보내 기병과 경보병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 지역을 군수물자 보급지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게르마니아인은 농사를 짓지 않고, 곡물을 많이 소비하지 않으며, 우유와 고기를 주식으로 했다. 실제로 카이사르는 수에비인이 숲속으로 퇴각한 것을 알고도 그들

29) Caesar, *Bellum Gallicum* 1.16, 6.24.

30) Caesar, *Bellum Gallicum* 1.23, 1.30-33, 1.37-41; Kurt A. Raaflaub & John T. Ramsey, “Reconstructing the Chronology of Caesar’s Gallic Wars”, *Histos* 11, 2017, 13-15.

을 추격하지 않았다. 이유는 게르마니아인은 어느 부족도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영토로 들어가 군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sup>31)</sup>

군사 전략가들이 풍부한 군수물자 확보를 주장해도 카이사르 군은 이탈리아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공화정 후기의 군대는 이전처럼 원로원의 승인 아래 군사령관이 군대 모집과 군수물자 확보가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이사르는 갈리아 현지에서 군수물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지 농경 재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 3. 군수물자 확보의 즉흥성과 위험성

『갈리아 전쟁기』에서 병참에 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것은 카이사르가 병참에 관해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가의 기록과 달리 카이사르가 그렇게 관심을 가진 배경에는 당시 로마군의 군수물자가 지속해서 부족했던 상황이 있다. 가령 기원전 57년에는 군량과 다른 군수물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절망적이었고, 기원전 56년에도 군량이 부족하여 군량과 다른 군수물자를 구하려 이웃 부족에게 갔다. 기원전 55년 브리타니아에서 폭풍으로 고초를 겪을 때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식량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로마군의 병사들이 낙담했다. 기원전 54년에도 군량이 모자라자 군대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었다.<sup>32)</sup>

31) Caesar, *Bellum Gallicum* 4.1, 6.22, 6.29, 7.65.

32) Caesar, *Bellum Gallicum* 3.3, 3.7, 4.29, 5.24.

로마군은 갈리아 지역에서 군수물자, 특히 군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원전 58년 로마의 동맹군인 아이두이인은 카이사르에게 사절단을 보내 헬베티이인이 자신들의 나라를 약탈하고 있다고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구에 응한 카이사르는 아라르(Arar) 강을 건너 헬베티이인을 공격했다. 그사이 카이사르는 아이두이인에게 약속한 군량을 제공하라고 재촉했다. 이는 카이사르가 동맹군으로부터 군수물자를 공급받았다는 말이 된다.<sup>33)</sup>

문제는 동맹군이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수물자를 지속해서 공급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기원전 262년 카르타고는 시킬리아(Sicilia)에서 군수물자 부족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시라쿠사이(Syracusae)의 히에로 왕(Hiero II)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견했다. 하지만 히에로 왕은 로마군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해 주었다. 이런 사례가 카이사르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다. 실제로 카이사르가 아이두이인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하라고 재촉했으나 그들은 차일피일 미루었다. 아이두이인은 날씨가 추워 곡식이 익지 않았거나 곡식을 모으고 있다거나 곡식을 운반하고 있다거나 곡식이 도착하기 직전이라는 등 갖은 핑계를 댔다. 너무 핑계를 대면서 미룬다고 생각한 카이사르는 휘하 부대에 군량을 배급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아이두이인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을 추궁한 끝에 아이두이인이 로마군이 이기면 자유를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로마군에 타격을 주고자 군량을 모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sup>34)</sup>

동맹군에게 의존하는 것은 동맹군의 배신으로 언제든 군수물자 부족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군수물자를

33) Caesar, *Bellum Gallicum* 1.11-17; A. Goldsworthy, *The Complete Roman Army*, London: Thames & Hudson Ltd, 2003, 169-171.

34) Polybius, *Historiae* 1.16-18; Caesar, *Bellum Gallicum* 1.11-17.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었다. 가령 스키피오는 스페인에서 카르타고에 대항할 때 전쟁 개시 전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이탈리아의 다양한 공동체로부터 군수물자를 받았다. 키케로도 스페인에서 세르토리우스와 전쟁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곡물’을 확보했다.<sup>35)</sup> 카이사르는 동맹군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나머지, 전투 전에 군수물자 확보 다양화와 동맹군의 배신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적지에서 군수물자가 부족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찾으러 나가는 것, 즉 즉흥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다. 첫째는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군수물자를 약탈하는 방법이다. 기원전 55년 메나피이인(Menapii)의 영토에서 로마군은 들판을 약탈하고, 곡식을 베어버리고 농가에 불을 질렀다. 기원전 53년 카이사르는 에부로네스인을 괴롭히기 위해 출동했다. 이때 곡식은 가축과 사람이 먹거나 늦가을 비에 쓰러져 대신 가축 떼를 전리품으로 몰고 갔다.<sup>36)</sup> 이처럼 약탈은 군수물자 보충과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 197년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황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항복을 이유로 하트라(Hatra) 요새에 대한 약탈을 금지했을 때 서부 지역 출신의 병사들이 황제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 요새에 대한 재공격을 거부한 일이 있을 정도로 약탈은 빈번했다.<sup>37)</sup>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약탈은 권장할만한 방법이 아니었다. 1세기의 철학자인 오노산드로스(Onosandros)는 약탈을 경계했다.

35) Livius, *Ab Urbe Condita* 28.45.1-21; Cicero, *Pro Fonteio* 6.13.

36) Caesar, *Bellum Gallicum* 4.38, 6.43.

37) Livius, *Periocha* 15; Plutarchos, *Lucullus* 17, 19; *Pompeius* 11; Dio, *Historia Romana* 48.5-14, 56.21, 75.9.

동맹국을 통과할 때 군지휘관은 병사들에게 그 나라를 공격하거나 파괴하지 말라고 명령해야 한다. 이유는 약탈이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하거나 그들을 상당히 적대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적국일 경우 파괴하고, 방화하고, 황폐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돈의 손실과 군량 부족이 풍요가 자양분이 되는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군지휘관은 적에게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알려야 한다.<sup>38)</sup>

현지 주민의 재산을 약탈하거나 무례한 공급을 요구할 때 그들을 적대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않은 약탈을 금지했다. 피루스(Pyrrhus) 전쟁 때 레기움(Regium)에 들어갔던 4,000명의 병사가 그 도시의 규모와 부에 매혹되어 주민을 살해하고 약탈한 적이 있었다. 약탈한 병사들을 응징하려 또 다른 로마군이 파견되었고, 결국 살아남은 300명이 붙잡혀 로마시에서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 238년 트라키아의 한 마을 주민들은 군인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숙식을 요구하여 로마에 우호적이었다가 불만이 극에 달한 사례가 있다.<sup>39)</sup> 약탈은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행동이고, 우호적인 갈리아인에게 군수물자를 공급받아야 하는 카이사르로서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하는 행동이었다. 약탈은 군량 확보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갈리아인 전반으로 전쟁을 확산, 격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는 현지에 널려있는 곡식을 즉흥적으로 수확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는데, 그것은 현지에 곡식이 자라는 계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인 밀은 6월부터 수확할

38) Onosandros, *Strategikos* 6.6-11.

39) Polybius, *Historiae* 7; M. Grant, *The Army of the Caesars*, New York: M. Evans & Company, 1974, 273.

수 있으므로 여름에는 어느 지역이든 밀이 풍부했다. 6월에서, 늦으면 10월 사이의 여름 전쟁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갈리아가 로마시에 침입했을 때는 기원전 387년 7월이었다. 트라시메누스(Trasimenus) 전투는 기원전 217년 6월, 칸나이(Cannae) 전투는 기원전 216년 7월, 자마(Zama) 전투는 기원전 202년 10월, 피드나(Pydna) 전투는 기원전 168년 6월, 아라우시오(Arausio) 전투는 기원전 105년 10월, 베르켈라이(Vercellae) 전투는 기원전 101년 6월, 파르살루스(Pharsalus) 전투는 기원전 48년 8월, 2차 베드리아쿰(Bedriacum) 전투는 69년 10월, 베로나(Verona) 전투는 249년 10월,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전투는 357년 8월, 아드리아노폴리스(Adrianopolis) 전투는 378년 8월, 샬롱(Châlons) 전투는 451년 6월이었다. 6-10월 전쟁이 빈번한 이유, 일명 ‘전쟁 계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격군이든 방어군이든 현지에 곡식이 자라는 것이 군량 확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sup>40)</sup>

카이사르도 전쟁 계절을 활용했다. 그가 5개 군단과 함께 갈리아 지역으로 건너간 것은 기원전 58년 6월 8일이었고, 베순티오에서 출발한 것은 들판에 곡식이 익고 있을 때였다. 다음 해 전투를 재개한 것은 6월 중순이었고, 전투를 종결한 것은 10월 중순이었다. 기원전 56년 베네티인과 전쟁한 것은 7월 초순이었고, 그해 전쟁을 종결한 것은 10월 말이었다. 기원전 55년 5월 말 게르마니아 지역으로 갔고, 전투를 한 것은 6월 말이었으며, 10월 중순 그해 전쟁을 종결했다.<sup>41)</sup>

40) Ammianus Marcellinus, 16.12.62; Livius, *Ab Urbe Condita* 22.6; Plutarchos, *Marcellus* 24; *Aemilius Paulus* 22; *Familiius* 4.

41) Caesar, *Bellum Gallicum* 1.23-26, 1.30-33, 1.40, 2.2, 2.34-35, 3.9-12, 4.7-14, 4.36-38; Kurt A. Raaflaub & John T. Ramsey, “Reconstructing the Chronology of Caesar’s Gallic Wars”, 14-37.

전쟁 계절에 전투하고 있다면 현지 들판에서 군량을 수확할 수 있다. 2세기의 사가 아피아누스(Appianus)는 현지에서 꼴을 찾아다니는 것도 군인들에게 필요한 노동이라고 했다. 그것은 농사를 짓는 것처럼 힘든 노동이어서 현지에서 모집한 군인들이 도망가려고 할 정도였다. 59년 코르볼로(Gnaeus Domitius Corbulo)의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땀감을 묶어 운반하던 병사의 손이 동상에 걸려 떨어져 나간 적도 있었다.<sup>42)</sup> 기원전 52년 로마군 지휘관인 라비에누스(Titus Labienus)는 들판에서 곡식을 다량 발견하자 병사들에게 넉넉히 나누어주었다. 적지를 돌아다니다 예기치 않게 군량을 확보한 사례이다.<sup>43)</sup>

문제는 적지에서 곡식 수확에 열중한다는 것은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것이고, 이는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베게티우스는 적을 공격하기 좋은 시점으로서 “주민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어슬렁거리거나 약탈하는 자들을 급습하라”고 했다.<sup>44)</sup> 실제로 기원전 55년 카이사르의 병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무구를 내려놓고 곡식을 수확하고 있을 때 적군이 기습 공격하여 로마군 병사들 몇 명이 죽은 일이 있었다. 또 기원전 53년 키케로(Quintus Cicero)는 군량을 구해도도록 가까운 들판으로 5개 대대와 원기를 회복한 약 300명의 병사를 따로 보냈는데, 이들이 게르마니아인 기병대의 기습 공격을 받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원전 52년 베르킨게토릭스는 로마군이 농가로 흩어져 곡식과 꼴을 구하러 갈 때마다 갈리아인 기병대를 보내 그들을 낚아채라고 연설했다. 갈리아인은 기병대가 우수하고, 로마군은 군량과 군수물자를 보급받지 못하면 현지에서 구하려고

42) Tacitus, *Annales* 1.35, 13.35; Josephus, *Bellum Judaicum* 3.85; Appianus, *Bellum Iberica* 88; *Bellum Punica* 7.40; Livius, *Ab Urbe Condita* 44.33.

43) Caesar, *Bellum Gallicum* 7.56.

44)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10.

하니 그때 갈리아인이 공격하려는 전술이었다. 당시 카이사르도 “군량과 꼴을 구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주둔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도록 하라고 명령했다.”<sup>45)</sup> 이를 볼 때 약탈이나 현지에서의 군량 확보는 그만큼 로마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방법이었다.

동맹군의 공급이나 약탈, 수확으로도 군량이 부족할 때 상황은 심각해진다. 기원전 205년 아프리카 전쟁 때 스키피오가 아레티움(Arretium)에서 1만 명의 병력이 3개월 먹을 분량의 곡식을 조달한 적이 있다. 기원전 46년 아프리카에서 카이사르 군대는 군량 30만 모디우스(modius), 즉 4만 명의 군인이 60일 동안 먹을 양을 저장했다. 반면 갈리아에서 카이사르는 1개월 분량의 군량만 확보되면 주둔지 밖으로 구하러 나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처럼 다른 전쟁과 비교해 보면 카이사르 군대의 군수물자 확보 상황은 긴급했다고 할 수 있다.<sup>46)</sup>

카이사르는 병사들에게 군량을 배급할 날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아이두이인의 가장 크고 부유한 도시인 비브락테(Bibracte)로 향했다. 헬베티이인을 뒤쫓다가 방향을 바꾸어버린 것이다. 또 아리오비스투스가 세콰니인과 아이두이인이 운반 중이던 군수물자를 로마군이 받지 못하게 가까이에서 진을 치자 카이사르는 게르마니아인의 주둔지를 지나 600파수스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주둔할 장소를 찾았다. 행군 방향과 주둔지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군수물자를 공급받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또 기원전 57년 벨가이인을 공격하러 갈 때 군량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놓은 뒤 출동했다. 이들 사례는 군수물자로 인해 전투 방향이 바뀌거나 전투 시점이 결정된 사례이다.<sup>47)</sup>

45) Caesar, *Bellum Gallicum* 4.31-32, 6.36-37, 7.14, 7.74.

46) Livius, *Ab Urbe Condita* 28.45.13-21; Caesar, *Bellum Africanum* 36; *Bellum Gallicum* 7.74.

기원전 56년 크라수스(Publius Crassus)는 제7군단과 함께 안데스인(Andes)의 영토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다. 그 지역에 식량이 부족해서 몇 명의 기병대 장교와 천부장을 이웃 부족들에게 보내 군량과 군수물자를 구해오도록 했다. 그런데 베네티인에게 파견된 벨라니우스(Quintus Velanius)와 실리우스(Titus Silius)가 억류되었다. 대서양 해안지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베네티인은 크라수스에게 잡힌 인질을 되찾을 목적에서 로마군에 반기를 들었다. 로마군은 지형도 모르고 항구도 적어 뱃길로 다니기 어려운 점, 군량이 부족하여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점, 함선이 부족한 점 등 모든 것이 불리했지만, 반로마적인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을 감행했다. 로마군이 승리했고, 베네티인은 노예화되었다.<sup>48)</sup>

로마군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하는데 우호적이었던 베네티인의 반발로 갈리아 지역에 전쟁이 재개되었다. 카이사르는 벨가이인이 패하고, 게르마니아인이 축출됨으로써 갈리아 전역이 평정되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군수물자 공급을 요구하면서 전쟁이 재개되자 동쪽의 일리리쿰(Illyricum)으로 가려던 방향을 서쪽의 대서양 해안지역으로 틀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크라수스가 보카테스인(Vocates)과 타루사테스인(Tarusates)의 영토로 진격했는데, 그 이유는 군량과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데다 적군의 수는 갈수록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기원전 55년 카이사르는 군량이 확보된 후에야 비로소 게르마니아인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으로 행군하기 시작했다.<sup>49)</sup> 이처럼 군수물자 문제는 전장이

47) Caesar, *Bellum Gallicum* 1.48-49, 2.2.

48) Caesar, *Bellum Gallicum* 3.7-16.

49) Caesar, *Bellum Gallicum* 3.24, 4.7; S. Mattern, "Imperial Power in the Roman Republic", in D. Tabachnick, & T. Koivukoski, eds., *Enduring Empire: Ancient Lessons for Global Politic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9, 127-146.

바뀔 정도로 전쟁의 향방에 영향을 끼쳤다. 군수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고, 군수물자를 확보한 후에야 작전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카이사르의 군사 작전의 즉흥성을 보여준다.

즉흥적으로 전장을 결정하는 것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스굿(J. Osgood)은 카이사르가 병력과 군수물자에 관한 한 즉각적인 재배치와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크라우스(C. Kraus)와 카펜터도 카이사르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로마를 위해 전쟁했고, 그가 주장하는 논리는 병사들을 잘 먹이고 잘 준비된 최적의 상태에서 전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으므로 즉흥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sup>50)</sup>

하지만 군수물자 부족으로 인한 조급성과 즉흥성에서 나온 작전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가령 기원전 57년 갈바(Severus Galba)는 군량과 군수물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물자 부족에 대한 절망감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 안전한 지역으로 가려다가 적군의 공격을 받았다. 6시간 이상의 전투로 패전 직전에 때마침 원군이 와서 구조되었다. 또 기원전 54년에 부로네스인과의 전투에 앞서 코타(Lucius Cotta)는 군량이 부족하지 않고, 카이사르의 명령이 없으니 카이사르에게서 증원 부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사비누스(Titurius Sabinus)는 오랫동안 포위 공격당하면 어차피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니 전투하자고 주장했다. 군수물자 부족에 대한 우려로 즉흥적으로 전투

50) J. Osgood, "The Pen and the Sword: Writing and Conquest in Caesar's Gaul", *Classical Antiquity* 28.2, 2009, 334; C. Kraus, "Bellum Gallicum", in G. Miriam, ed., *A Companion to Julius Caesar*,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9, 157-174; W. Carpenter, "An Analysis of Julius Caesar's Generalship as Compared to Proper Generalship in Vegetius", 6-28.

를 결정한 것이 로마군의 패전으로 이어졌다.<sup>51)</sup> 따라서 군수물자로 인한 작전과 전장 변경은 전체 부대와와의 조율도, 체계적인 대응도 불가능하므로 패전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었다.

기원전 3-2세기 원로원은 필요한 식량의 확보를 승인했고, 실제로는 1년 이상 전쟁이 지속되었지만 1년 단위로 군수물자 확보 계획을 수립했다. 가령 기원전 180년 집정관인 알비누스(Aulus Postumus Albinus)가 켈티베리아인(Celtiberia)에게 승리한 후 원로원에 올해 군대를 위해 관습적으로 보내는 봉급(stipendium)과 곡물(frumentum)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sup>52)</sup> 이처럼 중앙집중식 병참 체계는 안정적인 체계적인 군수물자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비교하면 카이사르는 군수물자를 자체 조달해야 해서 불안정했다. 카이사르가 군수물자를 갈리아 동맹군에게 의존하는 것은 안정적인 계획적인 방법이지만 동맹군의 배신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군수물자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 약탈이나 수확은 현지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방법이지만, 현지 주민에게 적대감을 불러넣을 가능성과 적군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위험하다. 군수물자 부족으로 작전과 전장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러한 즉흥성은 패전의 위험성을 키웠다. 따라서 성공한 전쟁이고, 카이사르가 병참에 관심이 있었지만, 당시 로마군이 군수물자를 모으는 과정이 기원전 3-2세기와 비교해서 체계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1) Caesar, *Bellum Gallicum* 3.3-7, 5.28-31.

52) Livius, *Ab Urbe Condita* 39.7, 39.23, 40.31-32, 40.35.

#### 4. 군수물자 수송과 병참 기지 선정의 위험성

군수물자를 모은 지역에서 다 소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주둔지나 전장에 군량이 필요하면 옮겨야 한다.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방법은 해로와 육로가 있다. 해로에 관한 한 카이사르는 강을 끼고 있는 도시를 군수물자 비축에 최적의 장소라고 보았다. 그는 기원전 58년 아리오비스투스가 베송티오를 장악하지 못하게 최고의 속도로 행군하여 점령했다. 이 도시는 높은 언덕과 두비스(Dubis)강이 도시를 에워싸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형이어서 모든 전쟁물자를 넉넉히 비축해 두었기 때문이다. 또 기원전 56년 젤리스(Gélise)강을 따라 손티아테스인(Sontiates)과 보카테스인, 타루사테스인의 영토로 진격했다. 기원전 52년 루아르(Loire) 강변에 위치하여 전략적 요충지였던 노비오두눔(Noviodunum)에 군량과 군자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군수물자를 모아두었다.<sup>53)</sup>

카이사르가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을 군수물자를 모아두는 거점으로 정한 것은 전략적으로 타당한 듯하다. 기원전 178년 이스트리아(Istria)에 대한 전쟁에서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실은 배들이 이스트리아의 가까운 항구에 보냈고, 그곳에서 주둔지로 수송된 사례가 있다. 공화정기 항구를 활용한 병참선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이다.<sup>54)</sup> 이처럼 바다나 강으로 수송하는 것이 육로 수송과 비교할 때 싼고, 대량의 식량을 수송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브런트(P. A. Brunt)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륙 지방이나 갈리아 키살피나 지역에서 육로로 수송하는 비용은 상당히 비쌌다.<sup>55)</sup> 가령 연간 로마시에서 소비되는 곡

53) Caesar, *Bellum Gallicum* 1.38, 3.20-23, 7.55.

54) Livius, *Ab Urbe Condita* 41.1.4-6.

물의 4-8개월 분량을 책임지고 있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서 로마시까지의 해로는 1,250로마마일 거리이다.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us) 황제가 법정 최고 가격을 공포한 최고 가격령(*Edictum de pretiis rerum venalium*)에 따르면, 그 수송비용은 카스트렌시스 모디우스(*kastrensis modius*) 당 16테나리우스이다. 이는 1로마마일 당 0.013테나리우스라는 의미이다. 최고 가격령에서 무게 1,200로마파운드의 짐을 육로에서 수레로 실어나르면 1로마마일 당 20테나리우스가 되는데, 이를 모디우스로 계산하면 1로마마일 당 0.362테나리우스가 된다.<sup>56)</sup> 해로는 육로로 수송할 때보다 수십 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수송에서 카이사르 군대의 문제점은 전장의 대부분이 바다나 강과 떨어진 내륙이라는데 있다. 가령 기원전 52년 아바리쿰(Avaricum) 전투에서 카이사르는 도시가 강과 늪지로 둘러싸이고 좁은 통로가 나 있는 곳에 진지를 구축했다. 그는 보이이인(Boii)과 아이두이인에게 군량을 대라며 계속 재촉했고, 병사들은 여러 날 군량을 받지 못해 최악의 굶주림에 지쳐 있었다. 베르킨게토릭스 역시 주변의 도시들을 모두 불태워 로마군이 물자 부족을 견뎌내지 못하게 하려는 작전을 제안했다. 카이사르가 베르킨게토릭스에게 패한 게르코비아 역시 고원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은 장소였다. 이들 지형은 요새로서는 적합하지만, 군수물자의 원활한 수송에는 부적합한 곳이었다.<sup>57)</sup>

55) J. Paterson, "Trade and trader in the Roman world: scale, structure, and organization", in H. Parkins & C. Smith, eds., *Trade, traders, and the ancient city*, London: Routledge, 1998, 149-167; D. Kessler & P. Temin, "The organization of the grain trade in the early Roman Empire", *Economic History Review* 60, 2007, 313-332.

56) *Edictum Diocletiani* 17.3, 37.1; Plinius, *Naturalis Historiae* 18.66; A. H. M. Jones, *The Later Roman Empire, 284-602: a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urve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841.

57) Caesar, *Bellum Gallicum* 7.14-17, 7.35-37.

갈리아인이 로마군에 대항하는 전술로서 도로를 차단하여 군수물자 부족을 유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sup>58)</sup> 전장이 내륙 지역으로 향할수록 군수물자 수송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배후의 병참선 확보 문제에서 베스파시아누스(Vespasianus)의 예루살렘 공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67년 베스파시아누스는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배후의 병참선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포위 공격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함락되지 않고 지연된다면, 배후의 적대 세력이 군수물자 공급을 차단한다면 군수물자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그래서 배후인 사마리아(Samaria)와 갈릴리(Galilee)에 있는 적대 세력들을 척결하는 작전부터 먼저 했다.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중요한 요새들을 점령한 후 예루살렘으로 진격함으로써 군수물자 부족이나 배후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했다.<sup>59)</sup> 이를 보전대 전장이 내륙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카이사르 역시 농업 생산성이 뛰어났던 갈리아 키살피나와 갈리아 나르보넨시스(Gallia Narbonensis)의 남쪽 항구를 거점으로 내륙으로 가는 경로를 배후의 병참선으로 삼았다면 북부 아프리카,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수송하기 쉬웠을 것이다.<sup>60)</sup>

배후의 병참선 확보가 어렵다면 육로 수송도 불가능 방법은 아니다. 수송 시간을 볼 때 육로는 해로보다 훨씬 더 걸린다. 해로일 경우 오스티아(Ostia)에서 아프리카까지 499.5km의 거리는 1.5일 만에, 푸테올리(Puteoli)에서 알렉산드리아까지 1,850km의

58) Caesar, *Bellum Gallicum* 1.48, 3.3-6, 5.24.

59) Josephus, *Bellum Judaicum* 3.29-58; J.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64 B.C.-A.D. 235*, 286-297.

60) B. Cunliffe, *Greeks, Romans and Barbarians: Spheres of Interaction*, London: Chrysalis Books, 1988, 40, 87-97.

거리도 8.5일이면 도착했다. 하루 평균 이동한 거리가 전자는 333km, 후자는 217.6km였다. 육로의 경우 오비디우스(Publius Ovidius)에 따르면, “여행할 때 서두르지 않아도 브룬디시움(Brundisium)에서 출발하여 10일 안에 로마시에 도착”<sup>61)</sup>한다. 총 544km의 거리를 10일 걸렸으니 하루 평균 54km를 갔다는 말이 된다. 육로의 수송 시간은 해로와 비교할 때 최소한 4배는 더 걸리는 셈이다.

브룬디시움에서 로마시까지의 아피우스 가도(Via Appia)가 잘 닦여 있어서 평균 54km이라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갈리아의 상황은 다르다. 기원전 122년의 집정관인 도미티우스(Cn. Domitius Ahenobarbus)가 최초로 갈리아 지역을 횡단하는 도미티우스 가도(Via Domitia)를 건설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남부 갈리아를 연결하는 이 가도는 육로를 활용하는 병참선으로 유용했다. 이처럼 관통하는 가도가 갈리아 전역에 있으면 유익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갈리아는 정복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도미티우스 가도 외에는 잘 닦인 도로망이 없었다. 소가 끄는 수레는 땅이 평탄하고 단단한 표면일 경우 시속 4km로 가고, 풀을 뜯어야 하므로 하루 7-8시간만 움직인다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도로라고 해도 하루 최대 28-32km밖에 움직이지 못하므로 카이사르는 소가 아닌 노새에 의존했다. 한 쌍의 노새가 끄는 수레의 경우 1,200로마파운드(392.9kg)를 끌 수 있었다.<sup>62)</sup> 로스의 계산에 따르면, 카이사르 군대는 시간당 7.2-8km를 매일 10-12시간씩 달려 72-96km를 갔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육로로 수송할 때 평탄하지 않은 도로여서 제대로 속도를 낼 수

61) Plinius, *Naturalis Historiae* 19.3-4; Ovidius, *Ex Ponto* 4.5.8.

62) *Edictum Diocletiani* 17.3-4; Vergilius, *Georgica* 1.273-5; J. P.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06; J. Peddie, *The Roman War Machine*,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2004, 59-71.

없었지만, 장시간 이동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해로 수송에서 선단이 움직이듯이 육로 수송도 대규모 군수물자 행렬이 동반한다. 해로의 경우 작은 배로 한꺼번에 1만 모디우스(70-80ton)를 수송할 수 있지만, 수레는 그 정도의 양을 수송하려면 178.2-203.6대의 수레가 필요하다. 페디(J. Peddie)의 계산에 따르면, 카이사르의 군대가 하루 필요로 하는 곡물의 양은 79ton이다. 카이사르가 1개월분의 군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므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수백 대의 수레가 필요하다. 수송해야 할 군수물자에는 30-80kg에 달하는 공성 장비도 포함된다. 아바리쿰 공성전에서 로마군은 화살을 발사하는 포(*scorpio*)를 장착했고, 기원전 51년 옥셀로두눔(Uxellodunum) 공성전에서는 공성탑(*turris*)과 ‘비틀림 포(*tormentis*)’를 배치했다. 그래서 한니발(Hannibal Barca)이 군수물자를 공급받으려면 2,000대의 수레가 필요했다고 한 것이다.<sup>63)</sup>

카이사르가 수백 대의 수레를 동원하여 군수물자를 수송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무거운 장비가 없다면 공성전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송해야 한다. 문제는 수백 대의 수레를 동원한 군수물자 행렬이 적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데 있다. 기원전 57년 카이사르는 두 군단 사이에 긴 군수물자 행렬을 두었다. 기원전 52년에도 베르킨게토릭스가 기병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로마군을 공격할 때 카이사르는 군수물자 행렬을 군단 사이로 옮겼다. 중앙에 배치하더라도 군수물자를 호위하는 부대를 따로 두어야 한다. 오나산드로스가 “의료 장비를 포함한 모든 군수물자를 군대의 중앙에 두어야 한다. 만약 후방이 안전하지

63) *Digesta* 50.5.3; Livius, *Ab Urbe Condita* 25.13.10; Caesar, *Bellum Gallicum* 7.17-29; Plutarchos, *Antonius* 38; Tacitus, *Annales* 2.5; Josephus, *Bellum Judaicum* 3.7.19;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25; J. Peddie, *The Roman War Machine*, 70.

않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썩썩하고 용기 있는 병사들로 후위 부대를 형성해야 한다”<sup>64)</sup>라고 했다. 카이사르는 군수물자 행렬을 군단 사이에 배치하여 군수물자를 지키고자 했다. 병력을 나누어 군수물자를 수송하거나 지키는 수비대를 배치했다.<sup>65)</sup>

군수물자 행렬을 중앙에 배치하는 것이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었다. 58년의 아르메니아 전쟁, 67년의 갈릴리 진격, 70년의 예루살렘 진격이 그 사례이다.<sup>66)</sup> 하지만 군수물자 행렬을 중앙에 배치하여 패전한 사례도 많다. 9년 토이토부르크(Teutoburg) 숲 전투, 69년의 베드리아쿰과 크레모나(Cremona) 전투에서 군수물자가 대열 중앙에 있어서 전투 대형을 전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sup>67)</sup> 또 다른 문제는 베르킨게토릭스가 포로를 통해 대열 중앙에 군수물자 행렬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는 데 있다. 로마군의 군수물자 부족을 유도하려는 베르킨게토릭스에게 군수물자 대열을 좋은 표적이었다. 이처럼 내부 현황이 적에게 노출된 상황이라면 전투 상황에 따라, 지형에 따라 군수물자 행렬의 배치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군수물자 행렬은 적의 공격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거리로 수송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병참 기지이다. 오나산드로스에 따르면,

군지휘관은 육지와 바다를 통해 군수물자를 병참 기지에 안전하게 하역하는지, 군수물자를 재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지를 고려

64) Onasandros, *Strategikos* 6.6.

65) Caesar, *Bellum Gallicum* 2.17, 5.49, 6.32, 7.67.

66) Livius, *Ad Urbe Condita* 8.8, 30.30-35; Polybius, *Historiae* 3.113, 15.9-14; Caesar, *Bellum Civile* 1.83, 3.88; Dio, *Historia Romana* 49.30;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6; Tacitus, *Annales* 1.50-51, 3.45, 13.40; Josephus, *Bellum Judaicum* 3.115-126, 5.47-48.

67) Dio, *Historia Romana* 56.20; Tacitus, *Annales* 1.63; *Historiae* 2.41, 3.25.

해야 한다.<sup>68)</sup>

병참 기지는 군대와 군량을 모으고 제공하는 장소이자 작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한다.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의 병참 기지인 노바 카르타고(Nova Carthago)를 “요새이자 군량 창고, 금고, 무기고, 기타 모든 것을 위한 저장소”라고 했다. 기원전 242년 릴리바이움(Lilybaeum) 전투에서 이탈리아와 시킬리아의 다른 동맹 지역에서 모은 군수물자를 시라쿠사이에 모아 보급했다. 기원전 203-202년 안티오코스 3세(Antiochos III)의 전쟁에서 키오스(Chios)를 병참 기지로, 기원전 178년 일리리아로 이동할 때 아퀼레이아를 병참 기지로 사용했다. 16년 게르마니쿠스(Germanicus)의 전투, 70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 “시리아와 그 인접한 속주”에서 군량을 가져온 것을 보전대 병참 기지로 삼을만한 지역은 도시라고 해도 전장에서 가까운 지역, 해로나 육로에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었다.<sup>69)</sup>

카이사르 군대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병참 기지로 사용한 장소이다. 로마군은 병참 기지를 겨울 주둔지를 사용했는데, 그 장소는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나 산, 숲, 늪지대, 요새, 도시 등 다양했다. 기원전 58년 말 카르누테스인(Carnutes), 안데스인, 투로네스인(Turones)의 영토에서 겨울을 보냈는데, 이곳은 루아르 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갈바가 이끄는 군대의 겨울 주둔지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고, 기원전 56년과 55년에는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으며, 기원전 54년에는 숲과 늪지대였다. 기원전 53년 에부로네스인의 영토 중앙에 방어시설을

68) Onasandros, *Strategikos* 6.14; Polybius, *Historiae* 1.17.5.

69) Livius, *Ad Urbe Condita* 21.57, 26.48, 31.33, 34.28, 37.27, 41.3-5; Polybius, *Historiae* 3.75; Tacitus, *Annales* 1.71; Josephus, *Bellum Judaicum* 5.520.

구축한 요새를 겨울 주둔지로 사용했다. 기원전 52년 너무 일찍 겨울 주둔지를 나서면 군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까 두려워했는데, 그 장소가 도시였다.<sup>70)</sup>

로마군은 가능한 한 항구나 하구를 병참 기지이자 겨울 주둔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령 기원전 169년 로마군은 일부를 에우보이아의 섬인 스키아투스(Sciathus)의 겨울 주둔지에, 일부는 항구인 오레우스(Oreus)에 있었는데, “이곳이 마케도니아와 테살리에 군수물자를 보내는데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북부 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인 우티카(Utica)는 기원전 149-146년, 기원전 47년 모두 로마군의 병참 기지이자 주둔지로 활용되었다. 제정기에도 마찬가지였다. 70년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과 가까운 요파(Joppa)나 얄니아(Jamnia)가 아니라 카이사레아(Caesarea)에 병력과 군수물자를 집결시킨 이유는 이곳이 해안에 군수물자를 내리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다.<sup>71)</sup> 따라서 전장이 내륙이라는 지형적인 한계를 참작하더라도 카이사르가 겨울을 났던 산, 숲, 늪지대는 일반적인 곳이 아니었고, 병참 기지로서도 한계가 있었다. 이런 장소는 강이나 바다를 활용한 배후의 병참선과 연결되기 어려웠다.

카이사르가 병참 기지에 군수물자를 보관하는 방식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53년 사마로브리바(Samarobriua), 아두아투키(Aduatuci)에 모든 군수물자를 모았고, 크라수스 군대와 제14군단이 그곳에 남아 군수물자를 지키게 했다. 또 기원전 52년에도 카이사르는 모든 갈리아인 인질과 군자금, 군수물자 대부분을

70) Caesar, *Bellum Gallicum* 2.35, 3.1-2, 3.29, 4.38, 5.52-53, 6.32, 7.10; Appianus, *Bellum Civile* 5.12.116.

71) Livius, *Ad Urbe Condita* 41.3, 44.13; Plutarchos, *Cato Minor* 58.3; Appianus, *Bellum Punica* 11.75;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47.2; Josephus, *Bellum Judaicum* 4.659-663.

노비오두눔에 모아두었다. 하지만 키케로의 겨울 주둔지, 사마로브리바, 노비오두눔에 모두 수비대가 있었는데도 적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비오두눔에 적군이 침입하여 군량을 배로 싣고 가고, 나머지는 강물에 던져버리거나 불태워 못쓰게 했다.<sup>72)</sup> 따라서 군수물자를 분산 배치하지 않고, 수비나 배급의 편의성을 위해 한곳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수송비용이나 수송 시간에서 육로보다 강이나 바다를 활용한 해로가 훨씬 유익했다. 하지만 갈리아에서 카이사르의 전장은 대부분 내륙 지역이어서 군수물자 수송이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카이사르가 갈리아 남부의 항구를 활용한 배후의 병참선을 구축했다면 군수물자 수급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또 군수물자 행렬의 위치를 다변화시켜 적군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막는 것 또한 필요한 전략이었다. 카이사르가 군수물자의 단거리 수송과 겨울을 위한 병참 기지이자 겨울 주둔지로 사용한 곳은 배후의 병참선과 연결하기 쉽지 않은 산, 숲, 늪지대, 요새 등이었다. 군수물자 수송에 불리한 지형, 군수물자를 한곳에 보관하는 방식은 카이사르 군대의 지속적인 군수물자 부족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병참 기지는 병참선을 고려하여 영구 주둔지를 건설하는 제정기와 비교하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 5. 맺음말

대다수의 고대 사가들이 병참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카이사르는 군수물자 확보나 수송에 관심이 많았다. 병사들이 무구를 갖추고 건설 도구를 지참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지고 가는 군량의

72) Caesar, *Bellum Gallicum* 5.44-47, 6.32, 7.55.

양은 3-5일분이 평균적이었다. 나머지는 현지에서 조달해야 했다. 공화정 후기에는 병력과 군수물자 확보의 책임이 원로원이 아니라 군사령관 개인에게 있었다. 카이사르가 현지에서 경작하여 군수물자를 모으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다양한 갈리아인과의 전쟁으로 빈번하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았다. 따라서 카이사르는 현지 주민들에게 의존하여 군수물자를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

카이사르는 로마와 동맹관계에 있는 갈리아인의 군수물자 공급에 의존했다. 하지만 동맹군은 군수물자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반로마로 돌아서서 군수물자를 주지 않을 수 있었다. 카이사르는 동맹군의 배신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다. 현지 주민의 식량이나 가축 떼를 약탈하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약탈은 적대적인 갈리아인을 확산하므로 자제해야 하는 방법이었다. 곡식 수확 시기에 현지에서 수확하는 것도 방법이었지만, 이 또한 수확으로 인해 경계가 느슨하여 적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처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군수물자를 제때 확보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군수물자 부족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조급하면서도 즉흥적인 작전 변경을 유발했고, 이는 작전 실패로 이어졌다.

군수물자를 전장이나 다른 주둔지로 수송할 때 해로는 육로보다 수십 배 더 짧고, 수송 시간도 4배 덜 걸렸다. 하지만 카이사르 군대의 전장이 바다나 강과 떨어진 내륙이어서 해로의 유일성을 활용하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수백 대의 군수물자 행렬은 적의 표적이 되기 쉬웠다. 이동을 적게 하면서 병참선을 연결하는 것이 병참 기지였다. 전장이 내륙이나 산, 숲, 늪지대를 병참 기지로 활용했는데, 이는 강이나 바다를 활용한 배후의 병참선과 연결되기 어려웠다. 또 수비나 보급의 편이성을 위해 군수물자를

한곳에 보관했는데, 이는 적군의 공격으로 군수물자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카이사르의 군수물자 수송이나 보관 방식, 병참 기지 선정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여 모든 전략과 전술, 지도력, 용병술, 병참술이 완벽했다고 볼 수 없다. 카이사르는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군수물자 부족 현상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그의 상황은 중앙집중식 병참 체계가 있었던 포에니 전쟁이나 상비군과 영구 주둔지 체제로 군수물자 수급이 일정했던 제정기에 비하면 열악했다. 따라서 공화정 후기는 이전이나 이후 시대와 비교하여 병참술에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1차 사료

- Appianus, *Bellum Punica*.  
Caesar, *Bellum Gallicum*.  
Cicero, *Tusculan Disputations*.  
Dio, *Historia Romana*.  
Frontinus, *Strategemata*.  
Josephus, *Bellum Judaicum*.  
Livius, *Ab Urbe Condita*.  
Onasandros, *Strategikos*.  
Plinius, *Naturalis Historiae*.  
Polybius, *Historiae*.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Tacitus, *Annales*.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 2차 사료

- Carpenter, W., “An Analysis of Julius Caesar’s Generalship as Compared to Proper Generalship in Vegetius”, *Student Research Submissions* 342, 2020, 4–36.  
Cowan, R., *Roman Legionary 58 BC–AD 69*, Oxford: Osprey Publishing, 2003.  
Cunliffe, B., *Greeks, Romans and Barbarians: Spheres of Interaction*, London: Chrysalis Books, 1988.

- De Blois, L., “Caesar the General and Leader”, in Raaflaub, Kurt A., ed., *The Landmark Caesar*, New York: Anchor Books, 2017, 102–108.
- Erdkamp, P., *Hunger and Sword. Warfare and food supply in Roman republican wars(264–30 BC)*, Amsterdam: J C. Gieben, 1998.
- Goldsworth, A., *Roman Army at War: 100 BC-AD 200*, Oxford: Clarendon Press, 1998.
- \_\_\_\_\_, *Roman Warfare*, London: Basic Books, 2000.
- \_\_\_\_\_, *The Complete Roman Army*, London: Thames & Hudson Ltd, 2003.
- Johnson, Kyle P. “Organization and Decision Making in Caesar’s ‘Bellum Gallicum’” *PhD. diss.*, New York University, 2012.
- Jones, A. H. M., *The Later Roman Empire, 284–602; a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urve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Kessler, D. & Temin, P., “The organization of the grain trade in the early Roman Empire”, *Economic History Review* 60, 2007, 313–332.
- Kraus, C., “Bellum Gallicum”, in Miriam, G., ed., *A Companion to Julius Caesar*,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9, 157–174.
- Mattern, S., “Imperial Power in the Roman Republic”, in Tabachnich, D. & Koivukoski, T., eds., *Enduring Empire: Ancient Lessons for Global Politic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27–146.
- Matthews, S. R., “The Logistics of Feeding the Roman Army on the Lower Danube”, *PhD. diss.*, University of London, 2018, 1–340.
- McMahon, Thomas Christian, “A Soldier in the Dark: Navigating Gaul through the Eyes of Caesar and His Men”, *World Languages*,

- Literatures and Cultures Undergraduate Honors Theses* 3, 2005, 1–64.
- Midford, S. & Evans, R., *Caesar's Triumphs over Gaul, and Rome*, Melbourne: La Trobe University, 2017.
- Osgood, J., “The Pen and the Sword: Writing and Conquest in Caesar's Gaul”, *Classical Antiquity* 28.2, 2009, 328–358.
- Parkins, H. & Smith, C., eds., *Trade, traders, and the ancient city*, London: Routledge, 1998.
- Peddie, J., *The Roman War Machine*,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2004.
- Phang, S. E. & Spence, I., eds., *Conflict in Ancient Greece and Rome: The Definitive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Encyclopedia*, California: ABC-CLIO, 2016.
- Phillips, Freedom-Kai, “A General's Self-Depiction: The Political Strategies of Gaius Julius Caesar as Seen in the *Commentarii de Bello Gallico*”, *Senior Honors Theses* 109, 2004, 1–22.
- Raaflaub, Kurt A. & Ramsey, John T., “Reconstructing the Chronology of Caesar's Gallic Wars”, *Histos* 11, 2017, 1–74.
- Raaflaub, Kurt A., “Caesar and Genocide: Confronting the Dark Side of Caesar's Gallic Wars”, *New England Classical Journal* 48, 2021, 54–80.
- Rosenstein, N., “Military Logistics”, in Raaflaub, Kurt A., ed., *The Landmark Caesar*, New York: Anchor Books, 2017, 92–96.
- Roth, J.,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64 B.C.-A.D. 235)*, Leiden: Brill, 1999.
- Ruppel, Dan, “Caesar's Corny Commentaries: Provisions as Power in The Gallic War”, *Hirundo: The McGill Journal of Classical Studies* 7, 2008/2009, 101–106.
- Serrati, J., “Review of Hunger and the Sword: Warfare and Food

Supply in Roman Republican Wars (264–30 BC)", *The Journal of Roman Studies* 90, 2000, 222–224.

(Abstract)

## The Limitations of Roman Military Logistics during the Gallic War

Bae, Eun-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whether the logistics system is properly prepared in the actual battlefield, as Caesar emphasized the logistic system. Caesar relied on the supply of munitions from the Gauls, allied with Rome. However, Caesar was not well prepared for the betrayal of the allies. One way was to loot food or livestock from local residents. However, looting was a way to refrain from spreading of the hostile Gauls. Harvesting on the battle spot during the harvest season was also a method, but this also had the disadvantage of being highly likely to be attacked by enemies due to loose boundaries due to harvesting. Caesar's lack of munitions led to hasty and improvised operational changes to secure munitions, which led to operational failure.

When munitions were transported to battlefields or other garrison sites, it was cheaper and took less time to transport by sea than by land. However, the battlefield of Caesar's army was inland away from the sea or river, so it was not easy to take advantage of the sea route. Mountains, forests, and swamps were used as logistical bases, which made it difficult to connect with the logistics lines behind them. In addition, munitions were kept in one place for the convenience of defense and distribution,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unitions may be lost due to an enemy attack. Therefore, there were problems in Caesar's method of transporting and storing munitions and selecting a logistical base.

Even if it is a victorious war, it cannot be said that all strategies, tactics, leadership, and military logistics are perfect. Caesar made great efforts to secure military supplies, but suffered from a constant shortage

of military supplies. His situation was poor compared to the period of the Punic War, when there was a centralized military logistical system, or the Imperial period when the supply of munitions was constant with the standing army system and the permanent garrison system.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late republican period had limitations in military logistics compared to the previous or later periods.

Keywords : military logistics, local procurement, munitions transport  
procession, logistical base, sea and land transport